

L AFC 새로운 7번 손흥민 “0부터 시작... 전설이 되겠다”

미국 프로축구 메이저리그(MLS) 로스 앤젤레스FC(LAFC)에 입단한 손흥민(33)이 새로운 출발을 다짐했다.

LAFC는 7일(한국 시간) 홈페이지를 통해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EPL) 토트넘 홋스퍼로부터 손흥민을 영입했다”며 “계약 기간은 2027년까지며 최대 2029년 6월까지 연장 옵션이 포함됐다”고 밝혔다.

현재 시간으로 6일 오후 2시(한국 시간 7일 오전 6시) 미국 LA의 다운타운에 위치한 BMO 스타디움에서 열린 입단 기자회견에 참석한 손흥민은 “꿈이 현실이 됐다. 이곳이 처음엔 제 선택지가 아니었지만, 시즌이 끝나고 가장 먼저 연락을 드린 곳”이라며 “네트 로젠탈 구단주와 대화하고 마음이 바뀌었다”고 말했다.

이어 “어제 팬들이 경기장에서 보여준 열정적인 응원에 정말 감동했고, 빨리 뛰고 싶단 생각이 들었다”며 “LAFC에 온 목적은 우승이다. 좋은 경기력을 보여주고 싶다”고 덧붙였다.

지난달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EPL) 토트넘 홋스퍼와 방한해 쿠팡플레이 시리즈에 나섰던 손흥민은 2일 기자회견에서 토트넘과 결별을 직접 알린 뒤 3일 서울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뉴캐슬(잉글랜드)과의 프리시즌 경기로 고별전을 치렀다. 이후 한국에 남아 이적 절차를 밟은 그는 5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미국으로 떠났다.

손흥민은 미국에 도착하자마자 전날 BMO 스타디움에서 열린 LAFC의 리그컵 경기를 현장에서 지켜봤다.

이날 구단은 손흥민을 전광판에 비추며 ‘LAFC 공격수’로 소개했고, 이날 공식 발표했다.



10년 된 토트넘 떠나 LAFC서 새로운 도전 “프리시즌 잘 치러 컨디션 좋아... 빨리 뛰고파”

손흥민은 “(토트넘에서) 모든 걸 쏟았다. 이제 새로운 도전이 필요했고, LAFC가 그 무대가 될 것이다. 아직 몸 상태는 좋고, 동료들과 함께 트로피에 도전하겠다”고 말했다.

독일과 영국에서 10년 넘게 뛰다 온 손흥민은 인터뷰 도중 “풋볼(football)”이라고 해야 하나, 사커(soccer)라고 해야 하나”며 농담하는 여유를 보이기도 했다.

유럽과 달리 미국에선 축구를 사커로

부른다. LAFC에는 과거 토트넘에서 한술밥을 먹었던 베테랑 골키퍼 위고 요리스가 뛰고 있다.

손흥민은 “요리스는 여전히 나의 주장”이라고 웃으며 “요리스와의 대화가 이적을 결심하는데 도움이 됐다”고 했다.

LAFC에 대한 “(토트넘 출신인) 요리스는 물론 이전에 가레스 베일(은퇴)과 (대표팀 동료) 김문환(대전) 등이 뛰어

심 있게 지켜봐왔다”며 “LA엔 한인 분들이 정말 많고, 커뮤니티도 크다. 외국에서 뛰는 건 행운이고, 그분들을 자랑스럽게 만드는 것도 제가 할 역할”이라고 말했다.

토트넘에서 프리시즌을 보낸 손흥민은 하루빨리 경기장에서 팬들과 만나고 싶다고 했다.

LAFC에서도 등번호 7번을 받은 그는 “몸 상태는 좋다. 물론 경기 출전은 감독, 코치진과 협의해야 하고 준비할 서류가 많지만, 저는 이곳에 축구를 하러 왔다”고 말했다. 이어 “최대한 빨리 팬들에게 인사하고 좋은 모습을 보이는 게 목표고 꿈이다. 컨디션엔 지장이 없다”고 자신했다.

뉴시스

세계양궁연맹 총회, 9월 1~3일 광주서 열린다

광주시, 회의운영·관광·숙박·문화 등 역할·협력체계 구축
광주세계양궁선수권대회 연계 160여회원국 대표단 참가
국제 마이스도시 위상 강화... 참가국 맞춤형 서비스 만진

‘2025 세계양궁연맹 총회’가 세계 양궁선수권대회와 연계해 오는 9월 1일부터 3일까지 광주에서 열린다.

세계양궁연맹(WA) 총회는 회원국 160여개국 대표단이 참가하는 국제 스포츠대회로 규정 개정 및 차기 집행부 선출 등 주요 의제를 논의한다.

광주광역시(시장 강기정)는 6일 오후 시청에서 2025 세계양궁연맹 총회의 성공 개최를 위한 ‘유관기관 협력 회의’를 열어 관광·숙박·자원봉사 등 분야별 협력체계 구축에 나섰다.

이날 회의에는 광주시 세계양궁대회 지원단, 광주관광공사, 광주자원봉사센터, 광주시립창극단, 호남대학교 RISE사업단, 라마다플라자 광주호텔, 홀리데이인 광주호텔, 금호고교 관계자 등이 참석해 세계양궁연맹 총회 준비 현황을 공유하고 분야별 역할 분담과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참석자들은 이번 총회를 광주가 국제 스포츠행정 중심지이자 마이스(MICE) 도시로 도약하는 계기로 삼기로 하고 지역의 역할을 모아 수준 높은 국제행사사로 만들자는 데 뜻을 모았

다. 협력기관들은 각 분야 전문성을 바탕으로 역할을 나눠 총회 준비에 힘을 보태기로 했다.

호텔업계는 다양한 국적과 종교를 고려한 식음·숙박 서비스를 제공하고, 광주자원봉사센터와 호남대학교는 회의장 운영과 참가자 편의 지원을 맡는다. 광주시립창극단은 전통 공연으로 지역문화를 소개하고, 광주관광공사는 회의의 시설 제공과 운영을 총괄한다.

광주시는 앞으로도 유관기관과 실질적인 준비사항을 지속 점검하는 등 총회 개최일까지 빈틈없는 준비를 이어간다.

전문 문화체육실장은 “세계양궁연맹 총회는 세계 양궁인들이 한자리에 모이는 최고 수준의 국제회의이자, 광주를 세계에 알릴 중요한 기회”라며 “도시 전체가 협력하는 체계를 바탕으로 참가자 만족도를 높이고 광주의 위상을 높일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김명수 기자

광전매일신문

TEL. (062) 525-9775
FAX. (062) 528-4566

동·호지정
계약 중

3,214세대 거대한 움직임이 시작되다.

운암자이포레나 퍼스티체

X1 | FORENA



방문예약시
스타벅스 기프트카드 증정!

※ 상기 CG는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실제와 상이할 수 있습니다.

PREMIUM6

NO.1 BRAND	총 3,214세대 대단지의 품격	원스톱 도보 학세권	일상을 높인 특화설계	다채로운 커뮤니티	쾌적한 에코라이프
대한민국 대표 브랜드 자이와 포레나의 합작	복구를 대표할 대규모 브랜드 타운	단지내 어린이집 및 단지 앞 경양초, 운암중 등 안심 학세권	채광과 조망을 고려한 남향 위주 단지 배치, 조망형 유 리난간 적용, 세대 전용 창 고 등	교보문고 북 큐레이션, 오 픈 커미티레이션 전 타석 GDR골프연습장 및 스크린 골프 등	약5.5만㎡ 규모의 단지 조 경과 운암산, 종외곡원 등 힐링 자연환경

발코니
무상

중도금
무이자

일부 품목
무상

+

파격적
혜택

총 3,214세대 중 일반분양 1,192세대 [전용 59㎡ / 75㎡ / 84㎡]

062) 607-8338

세종 운영 3년지 재건축정비사업조합 | 세종 GS건설 | (주)한화/건설 | HDC현대산업개발

올해 햄스트링 문제만 세 번째... KIA 김도영, 또 이탈하나

7일 롯데전에서 햄스트링 근육 뭉침 증세... 상태 지켜본 뒤 병원 검진 여부 결정

프로야구 KIA 타이거즈의 간판스타 김도영이 또다시 햄스트링(허벅지 뒤 근육) 문제로 마주했다. 복귀 3번째 경기만에 또 부상으로 이탈할 위기에 처했다.

김도영은 7일 부산 사직구장에서 열린 2025 신한 솔베르 KBO리그 롯데 자이언츠와의 경기에서 3번 타자 3루수로 선발 출전했지만, 5회 햄스트링에 불편함을 느껴 교체됐다.

KIA가 6-0으로 앞서던 5회말 무사 1루에서 롯데 운동회의 땅볼 타구를 처리하던 김도영은 공을 놓친 후 왼쪽 허벅지 뒤쪽을 만졌다.

그는 다리를 절뚝거리더니 결국 대수비 박민과 교체돼 끝까지 경기를 소화하지 못했다. KIA 관계자에 따르면 김도영은 왼쪽 햄스트링 근육 뭉침 증상으로 교체됐다.

김도영이 올해 햄스트링에 이상을 느낀 건 벌써 세 번째다.

그는 3월22일 NC 다이노스와 정규 시즌 개막전에서 왼쪽 허벅지에 통증을 호소했고, 검사 결과 햄스트링 손상 진



단을 받았다. 당시 근육 손상 1단계(그레이드 1) 소견을 받은 김도영은 약 한 달간 재활에 매달려야 했다.

이후 김도영은 복귀한 지 한 달여 만에 재차 햄스트링을 다쳤다. 5월27일 키움 히어로즈전에서 2루 도루를 시도하다 이번엔 오른쪽 햄스트링에 통증이 발생했다.

김도영은 검진 결과 지난번보다 부상 정도가 심한 햄스트링 손상 2단계(그레이드 2) 진단을 받으며 두 달 넘게 그라운드를 밟지 못했다.

부상을 딛고 돌아온 김도영은 지난 2일 1군 엔트리에 등록됐고, 한화 이글스와 2경기가 비로 취소돼 5일 롯데 자이언츠전에서 복귀전을 치렀다.

5일과 6일 롯데와 경기에서 각각 4타수 무안타에 그쳤던 김도영은 7일 롯데전에서 복귀 후 첫 안타를 때려냈고, 볼넷도 골라내면서 멀티 홈루를 기록했으나 다시 햄스트링을 다치는 약재와 마주했다. KIA는 김도영의 상태를 지켜본 뒤 병원 검진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뉴시스

영광군, 2025 전국 꿈나무 테니스 영광대회 개최

3월의 열기, 8월로 이어지다! 테니스 꿈나무들의 여름 축제

영광군(군수 장세일)은 오는 15일(금)부터 18일(월)까지 4일간 영광스포티움 테니스장 및 한수원 사택 테니스장에서 '2025 전국 꿈나무 테니스 영광대회'를 개최한다.

이번 대회는 전국의 초등학교 이하 테니스 유망주들이 참가하는 전국 규모의

경기로, 병아리부, 새싹부, 10세부, 12세부로 나뉘어 진행되며, 약 250여 명의 어린 선수들이 출전해 그동안 갈고닦은 기량을 겨룰 예정이다.

이번 대회를 통해 영광군은 유소년 체육 활성화는 물론 지역경제에도 활력을 불어넣고, 나아가 스포츠 중심 도시로서의

입지를 더욱 강화할 방침이다. 영광군 관계자는 “지난 3월 대회의 경험을 바탕으로 이번 8월 전국 꿈나무 대회도 한층 더 완성도 높게 추진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영광군은 지난 3월 개최된 ‘영광 키즈 오픈 테니스대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한 바 있으며, 당시 약 200여 명의 선수가 참가해 치열한 경쟁을 펼쳤으며, 전국 테니스 유망주와 학부모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은 바 있다.

영광/이현식 기자

장흥군, 탁구 국가대표 꿈나무 전지훈련 유치

장흥군은 8월 11일부터 24일까지 14일간 초등학교 탁구 국가대표 상비군 전지훈련을 유치한다.

이번 전지훈련은 전국 각지에서 선발된 초등부 대표 선수 및 지도자 총 50여 명이

참가해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훈련 프로그램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이번 훈련 프로그램은 기초체력 강화, 전술 훈련, 심리 상담, 인성 교육 등 다양한 영역으로 구성돼 선수들의 경기 집중력과 자기관리 능력을

향상시킬 것으로 기대된다.

장흥군은 실내체육관 등 주요 공공체육 시설의 안전점검을 사전에 마쳤다. 또한 전지훈련에 참여하는 선수들에게 해동수, 동학농민혁명기념관, 장흥126타워 등의 지역의 명소 방문 및 특색 프로그램 참여 기회를 제공함은 물론 공공체육시설 사용료 면제 등의 혜택도 지원할 예정이다. /장흥군 제공